



Max News

- 2023년 서울지점 아시아나 우수대리점 선정

Contact us

- 영업팀 메일: E) sales.kr@maxlogis.com
- 김민호 이사: E) mike.kim@maxlogis.com H) 010-2988-6309 T) 070-5096-9367
- 장명수 차장: E) simon.jang@maxlogis.com H) 010-4437-5175 T) 070-5096-9387
- 김현미 대리: E) sienna.kim@maxlogis.com H) 010-9924-2772 T) 070-5096-9124

서울

노선별 안내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UA/DL/PO 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02월 08일 / 11일 OZ 시카고 차터 추가 운항으로 안정적인 노선 영업력 지원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OZ587	2245/0025+1 1545/1715 0055/0225	D2 D5 D1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EWR T/S (TRUCKING)
LAX	OZ284/OZ286 OZ282	2330/1725	D1234567	DIRECT
	UA892	1650/1125	D46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400	DAILY	DIRECT
	UA892	1650/1125	D46	DIRECT
DFW	OZ242/OZ244	2300/0315+1	D1246	DIRECT
	DL158 DL026 DL170 DL196	0935/0825 1845/1810 1925/1650 2005/1335	DAILY	DTW T/S ATL T/S MSP T/S SEA T/S
ORD	OZ242/OZ244/OZ248	2300/2240	DAILY	DIRECT
	DL158 DL170	0935/0825 1925/1650	DAILY	DTW T/S MSP T/S
ATL	OZ248	230/0345+1	D357	DIRECT
	DL158 DL026 DL170 DL196	0935/0825 1845/1810 1925/1650 2005/1335	DAILY	DTW T/S DIRECT MSP T/S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OZ284/OZ286/OZ282	2330 / 1725	D123456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대리 (070-5069-9441)
SFO	OZ212	2050 / 1400	DAILY	DIRECT		
ORD	OZ242/OZ244/OZ248	2300 / 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장희원 사원 (070-5096-9101)
ATL	OZ248	2300 / 0345+1	D357	DIRECT		
DFW	OZ242/OZ244	2300 / 0315+1	D1246	DIRECT		
JFK	OZ587	2245 / 0025 +1	D2	DIRECT	작업일 17시	서현주 사원 (070-5096-9342)
	OZ587	1545 / 1715	D5		전일 17시	
	OZ587	0055 / 0225	D1		작업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 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 KE/OZ 국적사 중심으로 운임 안정화 및 약정 확대에 주력하는 2월 미주 시장 전망

- 수에즈 운하 사태 장기화 조짐에 급격한 해상 운임 인상 후 각 항공사 별 운임 인상 시기 조율 중
- LAX/ORD/JFK 등 성수기 이후 국적사를 중심으로 하여 노선 별 운임 인상 계획 및 최소 기존 운임 유지 조건 하에 관계하는 대리점의 노선 별 약정을 확대하여는 시장 분위기
- 2월 장기 연휴를 앞둔 시점에 일시적 시장 물동량 반등 이후 구정 연휴의 시작과 함께 중국 시장의 장기 연휴 진입으로 국내 시장 물동량을 포함한 중국 Sea & Air 의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급감 우려
- 2월 10일 K4 ORD 차터 및 KE의 LAX/ORD 차터 진행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 가속과 전자담배/이커머스 화물에 대한 운임 하락 및 한국 발 항공 화물 운임 인상 노력에 제약적인 요인 발생 가능성

** 항공사의 CBP 업무 안내에 불구하고 중국, 동남아시아 및 한국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마약류 운반 사태 전개로 미 세관에 의한 화물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 발생

- 화물기에 선적된 화물의 전체가 장기 보류 되는 등, 화물 처리 보류에 따라 높은 Storage 비용이 발생 등 관계 화물 진행 대리점에게 예외 없는 Penalty 적용
- 미국 CBP/캐나다 CBSA 도착 화물 검색 강화 및 불법 화물 적발 시, 출발지 포워드어 불이익 (구상 청구 및 운송 규제)조치가 적용되기에 정확한 화물 품목 기재 및 신고 절차 필수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서울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OZ795/OZ775 OZ793	23:15-10:10+1 02:40-15:00/22:35-11:00(+1)	화 금 / 수 월 / 목	DIRECT
	PAX	OZ541	08:50-14:50	DAILY	DIRECT
LHR	FRTR	OZ793	02:40-22:00 / 22:35-22:00(+1)	월 / 목	STN T/S
	PAX	OZ521	12:25-18:15	월 수 금 토 일	DIRECT
VIE	FRTR	OZ775/OZ789/OZ795 OZ797	23:15-06:35+1	수 / 목 / 화 금 일	DIRECT
CDG	PAX	OZ501	1035-1705	DAILY	DIRECT
MXP	FRTR	OZ789 OZ797	23:15-10:10+1 22:35-10:10+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외항사 T/S	QR	QR8983 QR8981	0145-0605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7	02:00-08:00 02:25-08:50	금 월
	TK	TK6545	04:50-11:35 10:50-16:05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223 CV7155 CV7226	07:25-14:20 03:10-11:05 07:30-14:40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8111 C8 7113 C8 7737	04:10-16:00 06:40-18:40 13:35-05:25(+1)	월 수 일	ICN-MXP *T/TIME: 2~4DAYS

* 아시아나 FCO/BCN/IST/ALA/TAS 직항 서비스도 가능하니,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여객기)
*ALA FRTR 선적도 가능합니다.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HR/STN	OZ793 (FRT)	0240 / 2200 2235 / 0625+1	D1 D4	DIRECT	토요일 15시 작업당일 17시	박주상 과장 (070-5096-9385) 박철희 대리 (070-5096-9389) 장예원 대리 (070-5096-9340) 진호연 사원 (070-5096-0003)
FRA	OZ793 (FRT)	0240 / 1500 2235 / 1100 +1	D1 D4	DIRECT	전일 17시	
FRA/VIE	OZ79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25	DIRECT	작업당일 17시	
	OZ775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FRA)	D36	DIRECT	작업당일 17시	
MXP/VIE	OZ789/797 (FRT)	2315 / 0635 +1 (VIE) 2315 / 1010 +1 (MXP)	D47	DIRECT	작업당일 17시	

메일 : europa@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 수에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럽 노선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추세

- 1월 시장 진입 후 상대적으로 조정받는 항공 화물 시장 여파에도 수에즈 사태 및 일부 노선의 back-log 현상으로 국적사 및 OAL을 포함한 성수기에 준한 강한 운임 상승세 유지
- 항공사의 HIGH YIELD 추구로 LHR/AMS 중심으로 선적되는 전자담배 및 이커머스 현행 운임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중국발 SEA & AIR는 OAL T/S 로 선적 처리되고 있는 상황
- 유럽 행 OAL (CV/QR/TK 등) 역시 화물 수요 증가로 점진적 운임 인상 및 스페이스 관리 치중

서울

** AY 러시아, 벨라루스 착 화물 선적 금지 조치

-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 영향으로 AY를 통한 러시아/벨라루스 행 선적 화물 진행 불가
- MAWB & HAWB 상 CNEE 가 러시아, 벨라루스를 포함하여, AWB 상 타 DEST. 이지만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벨라루스인 경우 선적 진행 불가
- 현지 세관 적발 시, 문제 화물의 SHIP-BACK 및 발생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청구 처리

** LO MAWB 기입 상 내용 중 우크라이나 정보 작성 기재 불가

- LO (폴란드항공)로 진행되는 모든 화물의 MAWB 상에 우크라이나 정보 기입 불가
- 폴란드 역외 회사를 통하여 우크라이나 행 화물 대행하는 과정에서 화물 처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원활한 선적 처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장기 체납 참고료 문제에 따른 청구가 이슈화 되면서 LO 측에서 MAWB 상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 기재 시 진행 불가

**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지속에 따른 운항 안내

- 이스라엘 Vs 하마스 갈등으로 하기와 같이 관계 항공사 항공 스케줄 사전 검토 요청
- 분쟁 장기화로 ICN-TVL 결항 지속과 이에 따른 TLV 행 관계 항공사 화물 선적 제한 지속

** KE의 24년 3월 01일 부터 한국 발 e-AWB 사용 의무화 계획

- 종이 운송장(M/AWB) 사용시 수수료 부과 (유럽/IST/TLV/DXB) CODE: MWC 15000/MAWB

** ET EU 화물 선적 진행 시, 반드시 FHL DATA 전송 시, HAWB 당 HS CODE도 기재 및 전송 필

** AY E-Commerce 패키징 불량 시 전량 off-load 및 Embargo 화물 적발 시 진행 불가

- 총기류(장난감 총, 연습용 목재 총 포함), RLI (UN3090, UN3480), 도검류, 폭발
- 샴푸 등의 액체류 : MSDS 공항 검수 및 허가 득 한 후 진행

서울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HKG (면세품/화장품 등)을 포함한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특가 및 스페이스 지원

OZ PVG 및 HKG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OZ 직항 이외 주요 OAL (SQ/LJ 등)에 기반하여 SQ 주요 운항 노선 및 LJ (BKK)에 대하여 다양한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OZ0987	화,목,토,일 1400-1520	DAILY	DIRECT
	OZ0947	월,수,금 1335-1455		
	OZ0361	월~금 0905-1005		
	OZ0365	월~금 1410-1510		
	OZ0367	월~금 2000-2105		
HKG	OZ745	1950-2250	DAILY	DIRECT
	OZ969/967	화OZ967(1000-1255) 화목OZ969(2340-0235)+1 수금OZ967(2340-0235)+1	화수목금	DIRECT
	OZ951	(2345-0720)+1	화금토	HAN병합노선
HAN	OZ933 / OZ383	월 22:00-00:50+1 / 월 2340-0230+1 화 23:45-02:35+1 수 22:00-00:50+1 / 23:45-02:35+1 목 23:30-02:20+1 금 23:45-02:35+1 / 2345-0235+1 토 23:45-02:35+1 일 1255-0250+1	DAILY	DIRECT
	OZ951			
	OZ933 / OZ953			
	OZ931			
	OZ951 / OZ387			
	OZ953			
NRT	OZ102	월,화,수,목,금,토,일 0900-1120 월,화,수,목,금,토,일 1550-1815 월,화,수,목,금,토,일 1220-1440 월,화,수,목,금,토,일 1835-2100 화, 0400-0620 수,금 1335-1555/ 일 1535-1800	DAILY	DIRECT
	OZ106			
	OZ104			
	OZ108			
	OZ194			
	OZ198			
	TPE			
OZ713		14:00-15:45		
LJ731		09:40-11:30	DAILY	DIRECT

서울

DEST	FLT	ETD/ETA	FRQ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OZ947	1335 / 1455	D135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OZ987	1400 / 1520	D24567	Direct	작업당일 18시	전나연 과장 (070-5096-9366)
HAN	OZ933	2200 / 0050 +1	D13	Direct	작업당일 17시	강준환 사원 (070-5096-9869)
	OZ387/951	2345 / 0235 +1	D234567	Direct	작업당일 15시	
HKG	OZ745	1950/ 2250	DAILY	Direct	작업당일 18시	김정은 대리 (070-5096-9384)
	OZ969/969	2340 / 0235 +1	D25	Direct	작업당일 18시	
	OZ951	2345 / 0720	D256	Direct	작업당일 18시	

** 중국 춘절 공휴일 일정

- 2024년 중국 공휴일 일정 2024년 02월 10일 부터 17일까지
- 연휴 관계 상, 04일 및 18일 경우 대체 휴무로, 정부 기관 및 기업체 정상 근무

** OZ 022월 중국 화물기 및 여객기 운항 안내

- TSN / YNT 노선 경우, 사유 B767F 정비로 TSN (D3/D6-2회) 및 YNT(D3)로 축소 운항
- PVG 화물기 운항 편 경우 대부분 낮 시간에 운항 예정으로 01월과 유사한 일부 편 출/도착 지연 예상

** JL (일본항공) 02월 01일 부터 eAWB 의무화

- 2024년 02월 01일부터 JL 의 운항 노선 전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인 eAWB를 실시 예상
- eAWB 의무 사용에 따른 업무적 관리 준비 필요

** 5J (세부퍼시픽) WIDE 기종 ICN-MNL 구간 재취항

- 1/20일 부터 D5,6,7 일자로 W/B 변경 및 지속 운항 기준하여 04월 01일이 Daily 편으로 증편 운항 예정
- A330-900 운항 확정으로 효과적인 Payload 극대화 예상 (Approx. 20톤 / FLT)

- MAX서울지점 2023년도 아시아나 우수대리점으로 선정



부산

■ 해운동향 : 한국 컨테이너선 종합지수 (KOBIC Container Composite Index), 51WK

✓ 미주 동/서안 6~9% 상승, Intra Asia 약하락

단위: 종합지수(Point), 항로별(\$/FEU)				업데이트 날짜	단위
항로	4주차(WK) (2024-01-29)	3주차(WK) (2024-01-22)	전주대비 (증감율)	2024.01.29	종합지수: Point / 그 외 항로 \$/FEU
종합지수	2,734	2,620	▲ 4.2%	3M	GM
원양 (Main-Lane)	미주서안	4,199	3,798	▲ 9.5%	1Y
	미주동안	5,813	5,440	▲ 6.4%	All
	북유럽	5,233	5,160	▲ 1.4%	
	지중해	6,118	5,942	▲ 2.9%	
중장거리 (Non-Main Lane)	중동	2,835	2,761	▲ 2.6%	
	호주	2,181	2,111	▲ 3.2%	
	남미동안	3,240	3,302	▼ 1.9%	
	남미서안	2,363	2,414	▼ 2.2%	
	남아공	2,089	2,097	▼ 0.4%	
인트라 아시아 (Intra-Asia)	서아프리카	2,139	2,133	▲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개의 노선 중 7개 노선은 전주대비 상승 ▲, 5개 노선은 전주대비 하락 ▼, 1개 노선은 보합세 (종합) 24년 1월 29일 종합지수는 전주대비 4.2% 상승한 2,734p로 집계됨. (미주) 서안은 전주대비 9.5% 상승한 4,199달러를 기록함. 동안도 5,813달러로 전주대비 6.4% 상승함. (북유럽/지중해) 북유럽 운임은 전주대비 1.4% 상승하여 5,233달러로 집계됨. 지중해는 전주대비 2.9% 상승한 6,118달러로 집계됨. (남미) 남미동안 3,240달러로 전주대비 1.9% 하락함. 남미서안 2,363달러로 전주대비 2.2% 하락함. (근해항로) 중국은 31달러로 전주대비 3.2% 하락. 일본은 186달러로 전주대비 보합세. 동남아는 전주대비 339달러로 전주대비 0.9% 하락함.
	중국	31	32	▼ 3.2%	
	일본	186	186	-	
	동남아시아	339	342	▼ 0.9%	

2) 해운동향 이슈

- 영국 해운시황 분석기관 Drewry의 Heaney 데이터 분석가는 "SCFI(상하이 컨테이너 화물 지수)가 11월 말 이후 8차례 연속 주간 인상 이후 주간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26일 전주대비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밝힘.
- 한편, 홍콩 해운물류 컨설팅 회사인 Linerlytica는 현재 운임수준이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음. 물동량/수요는 그대로인데 향후 투입될 선박량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해운 시황 전문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선박량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15%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선사들의 경쟁 심화와 운임 하락으로 직결되기에, 당장의 운임 상승세 역시 장기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한 포워드 업계 관계자 역시 "단기적 운임 상승의 여파로 선사들의 2024년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선박량 추가 투입으로 인한 시장 안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함.
- 특히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 물동량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특히 글로벌 수요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맥을 못추고 있음.

부산

- 2024년 컨테이너선 시황은 양대 운하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어려운 시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 세계 거시경제 전망 등에 따르면 2024년도 세계 교역성장률이 개선되며 컨테이너선 수요도 다소 증가하겠으나, 세계 경기둔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3~4%의 높지 않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팬데믹, 에버그린 수에즈 길막 사건 등과 이번 홍해 리스크의 결이 다르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엄경아 신영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홍해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해운사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리스크"였다고 밝힘.
- 이전의 팬데믹과 에버그린 수에즈 길막사건은 예상치 않았던 사고로 막힌 운하 통행길은 사고수습 까지 대기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연간 운항계획에도 차질을 빚게됨.
- 하지만 이번에는 해운사들이 우회로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었던 상황이며, 팬데믹 당시만큼 수요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운하 통과량 축소가 전체 공급망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힘.
- 배도 남아도는 상황이라 희망봉 우회항로 선택으로 굳어져도 운송공급량 충분할 것으로 보임. 만약에 한 순간 홍해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들어올려진 운임이 하락할 수도 있어서 해운사들의 주가가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운임 급등에도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힘.

3) 지점소식

부산지점 신규 업무 인원 총원

- 박미리 차장 (miri.park@maxlogis.com) / 이현지 대리 (joy.lee@maxlogis.com) 신규 입사
- 해상 및 항공 업무팀 증원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Feed back 의 서비스 제공 가능
- 선사 Pricing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해상운임 제공 가능

대만

1) 지점소식

2월8일~14일(7DAY) 설연휴 -15일부터 업무 재개예정
2월 28일 228 Peace Memorial day

2) 물류동향

대만 총통 선거로 인한 물류 영향 확인

2024년 1월 23일 대만 총통선거, 친미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진당 당선인도 노골적인 현상 변경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격인 경제협력 기본 협정 (ECFA) = 관세 우선 인하 선거전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12개 항목에 대한 ECFA를 중지 시키고, 향후 중지 항목 추가가 있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경제가 파괴되고, 대만 해협은 국제 무역의 중요한 허브로, 매년 전세계컨테이너 선적의 절반 가까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으며, 자동차,휴대폰, 반도체, 전자 전기 부품에 생산 중심지입니다. 대중국와에 수출 비율이 대외무역의 40% 이상. 대만과 미국, 중국 모두 당장은 극단적인 관계 악화보다 현상유지에 집중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대만발 해상&항공 물류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대만 <-> 중국 화물 이상 없이 진행중이고 ,스케줄 간편이나, 중단된 서비스는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대치 구도는 현 수준으로 유지, 미국과 경제 및 안보 면에서 더 밀착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에바항공 노사 간 합의점 못 찾으면 춘절 기간 조종사 파업도 불사

타오위안 조종사 노조는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인 에바항공의 급여 및 근무 조건에 관한 미해결 문제로 인해 파업을 승인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월요일에 내려진 이 결정은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에바항공이 직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충분히 인상하지 않고 외국인 조종사를 불법으로 고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바항공은 조종사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불법적인 채용 관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조와 에바 에어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노조는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설을 전후로 파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통지할 것이며, 장거리 항공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파업을 피하기 위해 에바항공과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1) 지점소식

2월 10일~13일 설연휴

홍콩발 하노이/호치민 LCL Consol 진행

2) 물류동향

• 홍콩 전자상거래 물류 협회 (HKELA) 파트너십:

- 홍콩 전자상거래 물류 협회 (HKELA)는 AlphaPort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및 아프리카의 주요 지도자들과 전략적 동맹을 발표.
- 이 협력은 아프리카 항공사 협회 (AFRAA), 코토누 항만국, 레이저브 플레이스 항구 및 중동 북아프리카 철도를 포함하며 "일대일로" 물류 및 네트워크 개발을 촉진 목표.

• MSC 에어카고, 네 번째 'B777' 화물기 인도

- 아틀라스항공으로 부터 네번째 인도 받은 B777 화물기로 홍콩-댈러스 노선 보강 예정.

증경

1) 지점소식

- 2024년2월 공휴일 02.10-02.17 춘절(구정)
- 안정적인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다양한 Route 개발과 항공사 전략적 계획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
- 충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CTU/WUH/CSX/CGO/XIY

2) 물류동향

- 중국 화물 무역수출입 통계41.76만억원 동기대비 0.2% 증가
- 전기 자동차,리튬 배터리,태양능 배터리등 수출 주요제품으로 증가
- 충청 발 상해착 장강 바지선 운송량 증가,기존 운항시간 30일 - >15일 단축하여 운송효율 상승
- 충청발 2월 항공스케줄

YEAR /MONTH	DEPT	항공사	FLT TYPE		DIRECT / T.S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P/C)	기종		출발지	도착지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O.	FLT. N	
202402	CKG	CA439	P	B738	D	CKG	ICN	CA439		CA439		CA439		
	CKG	KJ2626	C	B737	D	CKG	ICN			KJ2626				
	CTU	KJ212	C	B737	D	CTU	ICN				KJ212	KJ212	KJ212	
	CGO	KJ252	C	B737	D	CGO	ICN		KJ252				KJ252	
	XIY	KJ2726	C	B737	D	XIY	ICN				KJ2726			
	XIY	O37003	C	B767	D	XIY	ICN	O37003						
	XIY	KE812	P	333	D	XIY	ICN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812
		KE0328	C	77X							KE0328		KE0328	
	XIY	CF201	C	B737	D	XIY	ICN		CF201	CF201	CF201	CF201	CF201	
	CKG	CI5998	C	747F	T	CKG	TPE			CI5998				CI5998
	TPE	CI0160	P	330	T	TPE	ICN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0
		CI0162	P	330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I0162
	CKG	BR0678	C	B77X	T	CKG	TPE					BR0678		BR0678
		BR0160	P	781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60
		BR0170	P	333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BR0170
	CKG	CX3261	C	74N	T	CKG	HKG			CX3261				
CX3265		C	74Y					CX3265			CX3265			
CX945		C	32Q								CX945			
CX929		P	32Q							CX929			CX929	

하노이

1) 지점소식

- 항공 계약사 7C 및 OZ 직계약 운영 중
7C 12월 14일부터 기존 데일리 1대화물기에서 2호기 투입.
- 중국 - 베트남 국경 트럭킹 서비스 관련 타 물류사와 협력강화
- 중/장비 및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 통관 및 도비 작업 특화 강화.

2) 물류동향

- 하노이 발 항공 수출 메인 제조사인 SAMSUNG / LG 의 경우 기존 중국 향 항공화물을 항공선적 대신, 국경 트럭킹 위주로 진행 중. 항공스페이스 지난해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
- 과거 설 연휴 2 / 3주전에는 스페이스가 타이트하여 항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기존 국적항공사 화물의 경우에 저가 항공 (에어제주, 비엠텐, 뱌부등) 으로 진행되는 화물이 많은편, 저가 항공의 스페이스는 항시 타이트 한편
- 해상 스페이스의 경우, 여전히 공급부족으로 타이트 한편, 설 연휴 이후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

하노이발(노이바이공항) 인천착 2월 스케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DAY	FRIDAY	SATURDAY	SUNDAY
OZ734 (P)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23.50 - 5.45
OZ (F)	OZ9341 / 01:50 - 10:00	OZ0934 / 01:50 - 10:00	OZ0952 / 04:35 - 13:35	OZ0934 / 01:50 - 10:00	OZ0932 / 03:50 - 12:45	OZ0388 / 04:50 - 10:45	OZ0954 / 04:35 - 13:35
7C9206 (F)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3.55 - 10.25
7C9408 (F)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5.10 - 11.45

호치민

1) 지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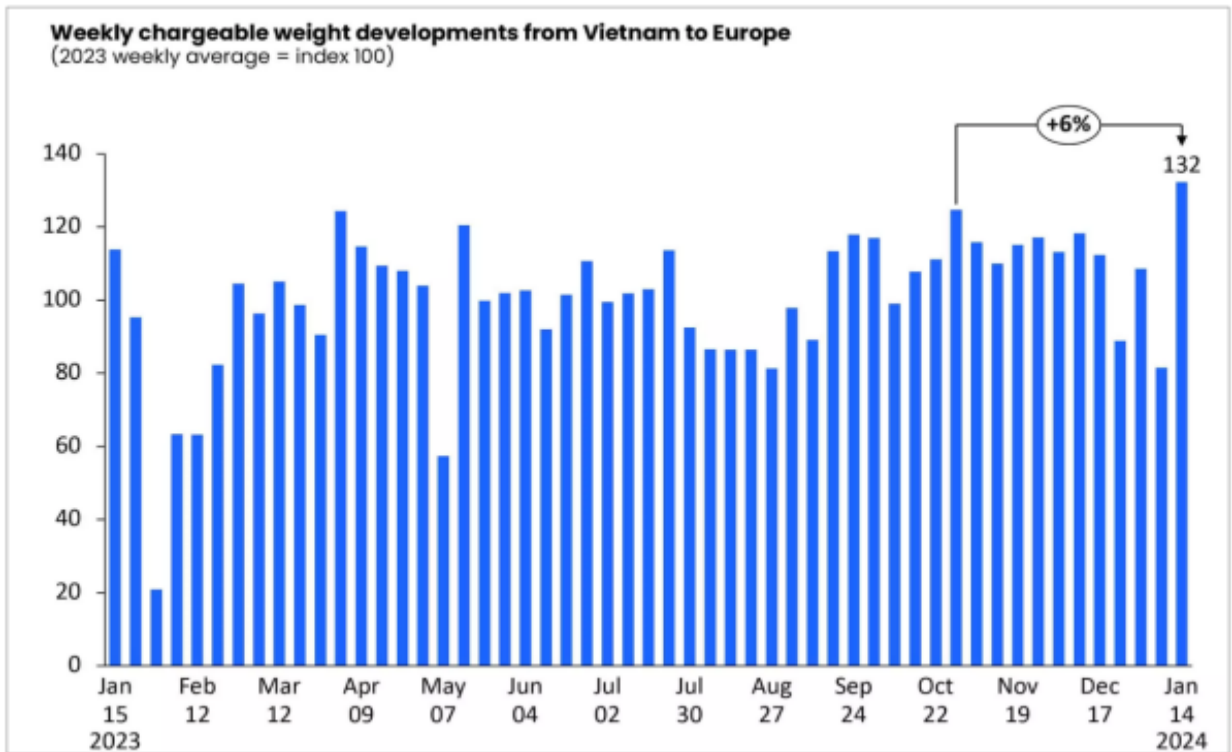
- 베트남 지점 휴일 안내
- 2월 8일 ~ 14일까지 **뗏(설)연휴**

2) 물류동향

항공

-1월 3주차 기준 베트남발 유럽노선 항공화물 수요는 전주 대비 62% 급증. 이에 따라 항공운임도 10% 상승된 것으로 분석됨. 해상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져 항공으로 선택하는 제조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항공운임은 급등세가 예상됨

-이는 2023년 정점인 10월보다 6% 높은 수치이며, 12개월 전 같은 주에 기록된 거래량보다 16% 증가한 수치임



-제네타는 항공화물 시장에서 현물운임 계약이 내년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운임 하향 변동성이 크기 때문)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전체 항공물동량의 약 70%가 현물 계약 운임인 것으로 나타남.

-홍해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화주들이 항공 화물로 더 많은 상품을 보내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앞으로 몇 주가 지나면 해상 화물에서 항공 화물로 실제 전환이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호치민

-이것은 홍해 위기가 항공 화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며, 또한 다가오는 중국 춘절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해야함

-베트남에서 유럽까지의 항공운임은 지난주에 비해 10% 증가했지만 물량이 증가하면서 용량(Capa)과 적재율(L/F)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비용은 더욱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해상

-홍해 위기에 하팍로이드는 사우디 육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
-현재 하팍로이드뿐 아니라 머스크와 에버그린, 현대상선등 대부분의 선사들이 홍해를 피하고 있음

-2월 15일부터 베트남발 THC인상
-Cat Lai항 규정 강화로 Mark 불일치 및 No mark의 경우 100% Penalty 발생
-최근 Delay로 인해 출항 스케줄 및 선명 변동이 잦음

물류

-세계 3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작년 수출 금액과 물량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 작년 7월경 인도 정부가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지했으며, 싸라기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면서 수요가 베트남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 됨.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수출 물량은 813만t으로 전년 대비 14.4% 늘었음
-수출액은 35.3% 증가한 47억달러(약 6조2천억원)를 기록
-최대 수출국은 필리핀으로 약 310만톤을 수출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가나가 뒤를이음

2023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물티슈 117톤을 수출 (22년에는 41톤 수출)

-한국 자영업자들이 불황으로 인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수입산 물티슈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한국 식약처에 따르면 23년도 한 해 동안 수입된 접객용 물티슈는 총 117톤으로 100% 베트남산이라고 함
-24년도 1월1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물티슈는 13톤이며, 베트남산이 유일하다고 함
-중국산이 날이 갈수록 한국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베트남산은 한국산은 물론이고 중국산 보다도 저렴하고 품질 문제도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함. 또한 업소용 물티슈는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점도 한 몫하는 것으로 확인 됨.

1) 물류 동향

1) 글로벌 해운동맹 '합종연횡'...?

- 글로벌 해운사 간 동맹 체계가 개편되면서, HMM은 머스크나 하팍로이드, CMA CGM 등 글로벌 주류 해운사가 주도하는 동맹 합류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독자 노선을 밟는 MSC나 짐(ZIM) 등과 새로운 동맹체를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5위인 독일 하팍로이드가 최근 새 해운동맹인 '제미니 협력(Gemini Cooperation)'을 결성하기로 했음
- 지금까지는 스위스 MSC·덴마크 머스크의 '2M', 프랑스 CMA CGM·중국 코스코·대만 에버그린의 '오션 얼라이언스', 독일 하팍로이드·일본 ONE·한국 HMM·대만 양밍의 '디 얼라이언스' 등 크게 3개의 해운동맹이 운영돼 왔음.
- 이 중 하팍로이드가 디 얼라이언스를 탈퇴하고, MSC와 갈라선 머스크와 새 동맹을 맺기로 한 것
- 하팍로이드가 디 얼라이언스 중 가장 큰 선복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디 얼라이언스의 해체 혹은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평가
- 특히 HMM이 2M 해체, 제미니 협력 결성 등으로 인한 신규 동맹 체제에 참여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됨

2) 홍해 리스크 고조에 해상운임 상승 지속...한 달간 두 배 올랐다

- 홍해는 중국과 유럽 및 미국 동부 해안을 연결하지만 이번 사태와 무관한 항로도 타격을 입고 있음
- 여기에 가뭄이 지속되며 파나마 운하의 선박 통행 제한까지 겹친 상황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에즈 운하의 해상 교통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음
-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5위인 독일의 하팍로이드 등 주요 글로벌 해운사선박을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 운항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항해 기간은 일주일 이상 늘어나고 비용 상승도 예상됨

2) 경제 동향

1) 독일철도 사흘간 파업...장거리 열차 20%만 운행

- 독일 철도기관사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음, 화물열차 기관사들은 전날 저녁부터 운영을 중단했음

- 철도기관사노조(GDL)는 지난해 11월 말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초 하루 경고 파업을 한 바 있음

- 노조는 이미 지난달 19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음

- DB는 이번 파업을 못 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핵심 쟁점은 노동시간임

- 노조는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임금은 월 555유로(약 80만원)를 인상하고 여기에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에 따른 보상지원금 3천유로(약 434만원)도 요구하고 있음

- 사측은 최근 근무 시간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며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적은 근무 시간을 각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음

- 노조는 "실체 없고 독이 든 제안으로 언론과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며 거부했음

2) EU 집행위, 1,000억 유로 규모 '유럽방위산업기금' 추진

*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9일(화) EU 방위산업 육성 및 EU 회원국 간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1,000억 유로의 방위산업기금 추진 방안을 제시

* 또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 포탄 생산을 확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1백만 발 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재확인

-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탄약 등 지원은 러시아의 생산량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18개월~2년을 전망

* 한편, 브르통 집행위원에 따르면, 집행위는 2월 말 발표를 예정으로 유럽 방위산업 전망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2월 1일 개최될 EU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협의할 예정

- 정상회의에서 동 안건이 협의되면,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등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인 회원국에 대한 지원 확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

- 키일 연구소(Kiel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최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 미국에 이어 독일이 171억 유로, 영국이 66억 유로 등을 지원함

- 반면, 프랑스 5.4억 유로, 이탈리아 6.9억 유로, 스페인 3.4억 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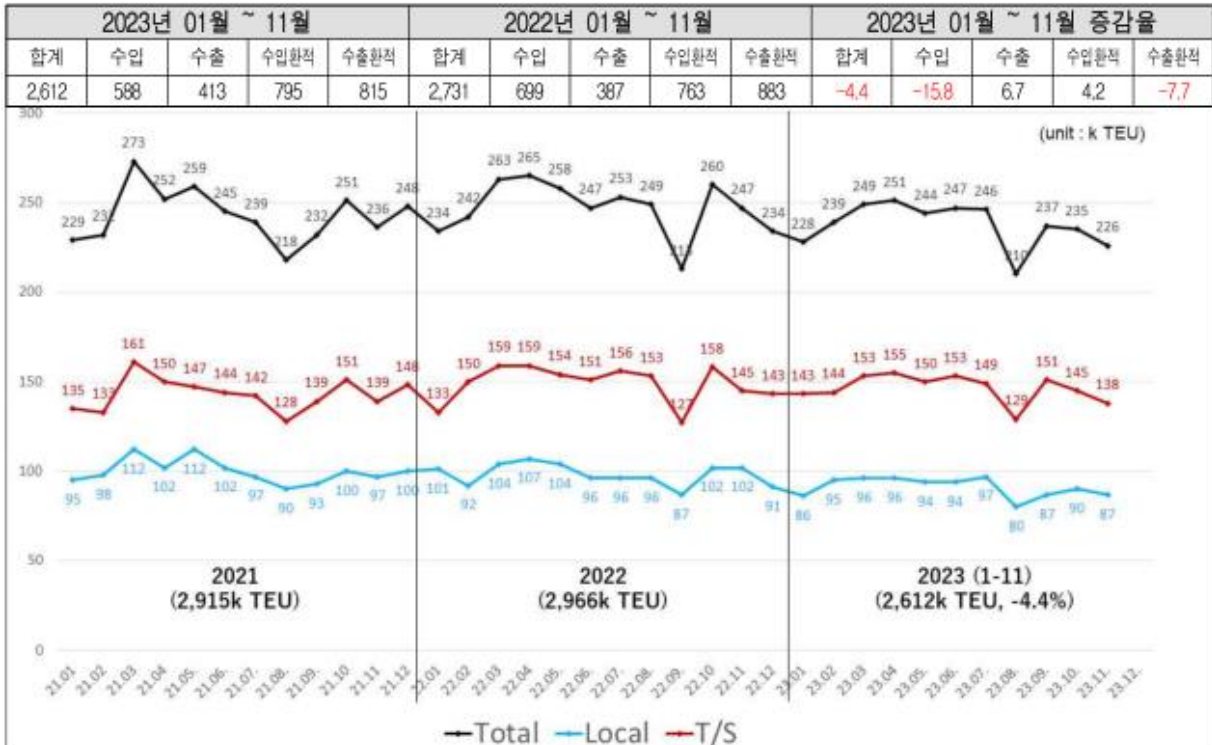
1) 물류동향

○ (부산-일본 물동량)

수입(부산착) 및 수출(부산발) 2,612천TEU 처리 (4.4% ↓)

* 수출입 1,002천TEU (7.7% ↓) / 환적 1,610천TEU (2.2% ↓)

단위 : 천TEU



○ (일본 화주별 부산환적 비중) '23. 1-12월 기준 일본→미국화물 총 607천TEU 중 142천TEU가 부산에서 환적되었음

<'23 1-12월 일본 → 미국 주요화주별 물동량 >

순위	화주 (Shipper)	일본발 미주향 총물동량 (TEU)	부산 환적 물동량 (TEU)	부산환적 비중
1	KUBOTA CORPORATION (JP)	30,273	11,327	37%
2	TOYOTA MOTOR CORPORATION (JP)	26,434	4,368	17%
3	SUBARU CORPORATION (JP)	24,805	1,379	6%
4	TOYO TIRE (JP)	16,982	2,262	13%
5	YAMAHA MOTOR CO LTD (JP)	12,404	3,162	25%
6	ISUZU MOTORS LIMITED (JP)	10,094	253	3%
7	MAZDA MOTOR CORPORATION (JP)	9,184	3,850	42%
8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CO (JP)	8,368	2,760	33%
9	TOYOTA MOTOR CORPORATION T 037 (JP)	7,247	-	0%
10	SUMITOMO RUBBER INDUSTRIES LTD (JP)	6,054	1,302	22%

일본

<'23 1-12월 일본 → 미국 주요화주별 물동량 >

11	PANASONIC OPERATIONAL EXCELLENCE (JP)	5,954	97	2%
12	KOMATSU LOGISTICS CORP (JP)	5,534	2,936	53%
13	THE YOKOHAMA RUBBER CO LTD (JP)	5,152	297	6%
14	SUZUKI MOTOR CORP (JP)	4,521	67	1%
15	AISHIN CORPORATION (JP)	4,277	1,452	34%
16	TOYOTA INDUSTRIES CORPORATION (JP)	4,063	-	0%
17	CENTURY DISTRIBUTION SYSTEMS,INC. (JP)	3,982	3,020	76%
18	NTN CORPORATION (JP)	3,627	6	0%
19	NICHIA CORPORATION (JP)	3,509	1,332	38%
20	YANMAR CONSTRUCTION EQUIPMENT CO L (JP)	3,124	2,509	80%
21	SUMITONO SEIKA CHEMICALS CO.,LTD (JP)	2,781	1,331	48%
22	HITACHI ASTEMO, LTD. (JP)	2,750	155	6%
23	RICOH COMPANY LTD (PA)	2,725	583	21%
24	HINO MOTORS LTD (JP)	2,711	14	1%
25	YANMAR POWER TECHNOLOGY CO., LTD. (JP)	2,345	308	13%
26	SEACON CO. LTD (KR)	2,297	-	0%
27	KUBOTA MACHINERY TRADING CO LTD (JP)	2,249	963	43%
28	MITSUBISHI LOGISNEXT CO LTD (JP)	2,214	1,132	51%
29	NIPPON SHOKUBAI CO LTD (JP)	2,112	1,633	77%
30	JTEKT CORPORATION (JP)	2,057	698	34%
31	NTC WISMETTAC SINGAPORE PTE LTD (SG)	2,012	202	10%
32	NSK LTD (JP)	1,998	105	5%
33	TOYO TIRE CORPORATION (XX)	1,900	14	1%
34	SUMISHO METALEX CORPORATION (JP)	1,818	482	27%
35	WISMETTAC FOODS INC (JP)	1,724	183	11%
36	TOP CORPORATION (JP)	1,627	434	27%
37	TOYOTA MOTOR CORPORATION T 122 (JP)	1,571	-	0%
38	SHIN ETSU CHEMICAL CO LTD (JP)	1,544	349	23%
39	COMMERCIAL AIR PLANE COMPANY (JP)	1,500	33	2%
40	MITSUBISHI MOTORS CORPORATION (JP)	1,460	352	24%

* 출처 : Descartes Datamyne, 적 '컨 기준, FROB(미국경유 제3국화물) 제외

1) 지점소식

• 태국 지점 신규 직원 입사

- 이름 : Saowalak Pleenoy
- 직급 : Supervisor
- 직무 : CS Shipping

CS Shipping직원 영입을 통한 자체통관 시작, 차후 수출입 통관/oversea freight 일괄관리로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기대.

2) 물류 동향

• 홍해 사태의 태국 수출길 위협

홍해 사태가 태국 수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번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운송비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태국 수출에서 흑자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홍해에서의 후티 반군 선박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선박이 많아지며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부품난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큰 영향이 있지 않지만, 이번 홍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앞으로 태국이 이로 인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주시 해야할 것이다.

위 사태로 인해 맥스탑 태국 지점은 선사와 사전 협의하여 운임 동결에 힘쓰고 있으며, 3-4월까지의 운임 인상유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주 서안 노선은 3월까지 현재 1월 운임과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일부선사와 협의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 물류 동향

• 태국발 망고 물량 시작

태국은 1차 산업과 관광이 발달한 국가이며 그 중 특히 농업과 과일 수출이 많다. 망고는 1월 말부터 조금씩 항공으로 수출이 증가가 되는 추세이며, 매년 3-6월까지 극성수기로 일 100톤 가량 한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수출과일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1월말 잠깐 스페이스 부족현상이 나타났으며,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시작으로 스페이스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태국발 한국향 항공수출 시 최소 1주일 전 사전 스페이스 예약이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스탑 태국은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XJ와 협업하여 GCR 기준 BSA하여 진행중이며, 망고의 극성수기 기간동안 BSA물량내로는 문제없도록 항공사와 협의완료된 상태로 안정적인 스페이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